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지방투자 활성화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대폭 상향 최대 2.8배 인상, 최고 85억원까지 지원	투자유치실	
② 경북도, 불시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조치 한다 재해·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에 재난대비예산 100억원 투입	안전정책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 경북소방본부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18개소 신·증축	소방본부	사진별첨
④ 경북도, 불의에 항거한 4·19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19일, 경북도청에서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식’ 가져	사회복지과	 사진별첨
⑤ 2017년 도정의 중심은 일자리다! 2017 일자리사업 실국별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열려	일자리경제 교통단	사진별첨
⑥ 2017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선정 대상(의성군, 최우수(안동시, 상주시), 우수(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FTA농식품 유통대책단	
⑦ 멋진 청년CEO들의 선택과 도전! 사회적경제를 품다 19일, 꿈을 키워가는 귀향 청년 사회적기업가 간담회 가져	사회적경제과	사진별첨
⑧ 수출확대를 위한 딸기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현장설명회 수출딸기 고농도 이산화탄소 처리시 품질유지에 효과적, 복숭아에도 적용가능	농업기술원	사진별첨
⑨ 경북도, ‘토양 오염지역을 찾아라’ 실태조사 실시 250개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	보건환경 연구원	사진별첨
⑩ 경북도, ‘자치입법 역량강화 연찬회’ 가져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 도모	혁신법무 담당관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장	홍순용		
			사무관	서장환	주무관	김현우
연락처	054-880-4628					

경북도, 지방투자 활성화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대폭 상향

- 최대 2.8배 인상, 최고 85억원까지 지원 -
- 신증설투자, 수도권 이전, 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

경상북도는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점차 냉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 경상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제난국을 돌파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투자 파급효과가 큰 신설 및 증설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기업당 지원금액 한도를 신·증설은 기존 최고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유턴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최고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은 ‘투자유치’라고 판단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투자촉진보조금 472억원을 41개 기업에 지원해, 총 3,917억원의 신규투자와 983명의 신규고용을 이끌어내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해 2016년은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분야 모두에서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진 하겠다” 며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지역구분 (국비:지방비)	수도권 이전기업·U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지원 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65:35)	설비(8%)	입지(10%) 설비(11%)	입지(30%) 설비(14%)	설비(8%)	설비(11%)	설비(14%)	(국비60억 +지방비 부담금 범위내)
지원우대지역 (75:25)	설비(11%)	입지(20%) 설비(19%)	입지(40%) 설비(24%)	설비(11%)	설비(19%)	설비(24%)	

- 일반지역 :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경산시, 칠곡군
- 지원우대지역 : 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 김천혁신도시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작성자	과장	김창우			
			담당	전년무	주무관	심재훈	
연락처	054-880-2391						

경북도, 불시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조치 한다

- 재해·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에 재난대비예산 100억원 투입 -
- 도내 50여개 재해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 대상 현지점검(3.23~4.3.) 완료 -

경상북도는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재난 위험지역에 선제적 예방사업 예산 100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경북도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3개 시·군 50여개 재해·재난취약 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조사반 6명을 편성해,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와 시급히 보수·보강해야 할 재해취약지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경북도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도로·급경사지, 하천정비, 저수지 방수로, 수문정비 등 재해취약 23개 시·군 39개 지구에 100억원을 투입해 재해·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 도로 및 급경사지 보수보강 5건(15억), ▲ 하천정비 30건(70억), ▲ 수문정비사업 등 4건(15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고예방 및 피해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재해·재난취약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산투입을 통해 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상북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원열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 방지사업을 시행해 혹시 일어날지 모를 불행한 사태에 대비 하겠다” 며,

“앞으로도, 시설물 보수·보강, 예·경보시스템 도입,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경북’ 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작성자	과장	김용태		
			사무관	류득곤	주무관	석대진
		연락처	054-880-6130			

경북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

- 경북소방본부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18개소 신·증축 -
- 238억 투입, 동해안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생활관, 소방서 3개소 신축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재난예방과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238억3천5백만원을 투입해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제2생활관, 소방서 3개소 등 18개 소방청사를 신·증축하고, 현재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19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동해안 지역 원자력·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시 기계면에 ‘경상북도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전에 대한 도민의 교육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소방학교 제2생활관을 신축해 안전교육 중추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도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방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 개서를 목표로 청도소방서 신축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도청 신도시 지역의 소방수요 증가에 맞추어 신도청119안전센터도 11월중 개소를 목표로 예천군 호명리에 착공했다.

아울러, 김천혁신도시 활성화와 급변하는 김천지역 소방수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김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 착공과 예천군 지역의 재난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2018년 개서를 목표로 예천소방서 신축 설계를 착수했다.

근무특성상 참혹한 현장상황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위해 의성·고령·청도 소방서에 심신 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울진·영덕지역에 비상대기 숙소를 확보해 비연고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에 대한 안정된 주거여건을 제공한다.

한편, 노후협소한 소방청사로 인해 근무여건이 취약한 119안전센터 1곳, 119지역대 4곳을 이전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을 위한 119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며,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경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작성자	과장	신현욱			
			사무관	장성활	주무관	임완식	
		연락처	054-880-3732				

경북도, 불의에 항거한 4·19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 19일, 경북도청에서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식’ 가져

경상북도는 1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기관장과 4·19혁명 회원 및 유가족, 보훈단체장,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먼저, 4·19민주혁명 ‘그날을 기억하다’ 영상물 상영에 이어,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4·19혁명 기념식’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했던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4·19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적 나라사랑 정신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은 민주화 운동의 금자탑이며, 우리 헌정사에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한 위대한 민주시민 혁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4·19혁명이 우리 지역의 2·28민주운동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구·경북이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새길을 열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식 계획

제57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했던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4·19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적 나라사랑정신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4. 19(수) 11:00~11:30
- 장 소 : 경북도청 다목적홀(본관 1층)
- 인 원 : 200명(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 보훈단체회원, 학생 등)
- 주 최 :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공동(격년 실시)
- 주 관 :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연합지부(지부장 박중식)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40~11:00	20' · 식전공연	경북환경연수원 합창단 도립교향악단
11:00~11:10	10' · 개식 및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1~4절) - 순국선열 및 4·19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
11:10~11:15	5' · 영상물 상영	'그날을 기억하다'
11:15~11:23	8' · 4·19민주혁명 경과보고	4·19민주혁명회 도지부장
11:23~11:26	3' · 기념사	경제부지사
11:26~11:30	4' · 4·19의 노래 제창	참석자 전원
11:30	· 폐 식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경제교통단				
		작성자	단장	임성희			
			담당	황진련	주무관	오태현	
연락처	054-880-2642						

2017년 도정의 중심은 일자리다!

- 2017 일자리사업 실국별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회 열려 -
- 일자리 실패사례, 성공사례, 애로사항 등 ‘브레인스토밍’ 병행 -
-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 신속집행 독려, 2018년도 신규일자리 방안 논의 -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우병윤 경제부지사 주재로 일자리사업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실업난, 특히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각 실·국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선6기 일자리 목표 30만개와 좋은일자리 10만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총괄 보고, 각 실·국과 부서별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지역일자리와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7년도 경상북도의 일자리 1/4분기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일자리 116개 사업 78,973개 목표 중 23,650개로 약 30%의 실적을 거두었다.

세부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1,450개), 지역정보화강사(147개), 공예업체 인턴(40개), 가사간병방문도우미(392개), 노인돌봄기본서비스(899개), 전통시장청년몰(15개), 김천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41개), 경북환경알리미(54개), 국내외투자유치(1712개) 등 2017년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무원 채용, 청년일자리 등 몇몇 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공고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2/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인재(96명),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 졸업생(79명), 신한울 1·2호기 원전건설 일자리(187명) 등 362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2017년 좋은일자리도 32,234개 목표 중 1/4분기 13,373개 (41.5%)로 함께 좋은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가 청년 취업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보고회에 참석한 담당 실국장들에게 “지금의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일자리 문제가 자신의 아들·딸 일이라 생각하고 각종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음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취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 시책과 새 정부 정책에 맞추어 발굴·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2017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계획

◇ 민선6기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및 17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으로 청년·여성·서민 중심의 좋은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4. 19(수) 09:00
- 장 소 : 호국실(2층 209호)
- 참 석 : 20명 정도
 - 경제부지사, 실·원·국장(14)

■ 주요내용

- 2017년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보고
- 2017년 일자리 목표, 실적 및 향후계획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02	3'	▶ 개회	왕진련 사무관
09:02~09:07	5'	▶ 인사말씀	경제부지사
09:07~09:57	50'	▶ 실·국별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보고 일자리민생본부 ⇒ 농축산유통국 ⇒ 기획조정실 ⇒ 창조경제산업실 ⇒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체육국 ⇒ 환경산림자원국 ⇒ 복지건강국 ⇒ 동해안발전본부 ⇒ 투자유치실 ⇒ 여성가족정책관 ⇒ 인재개발정책관 ⇒ 해양수산정책관 ⇒ 농업기술원	실·국장
09:57~10:00	3'	▶ 당부말씀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작성 자	단 장	김 동 진			
			담 당	권오현	주무관	서열환	
		연 락 처	054-880-3340				

2017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선정

- 대상(의성군), 최우수(안동시, 상주시), 우수(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

경상북도는 19일 ‘2017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으로 ▲ 대상 의성군, ▲ 최우수상 안동시·상주시, ▲ 우수상 영주시·영천시·예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15년도부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시군의 수출실적과 관련 정책을 평가·포상해, 우수 시군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수출확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수출실적 뿐만 아니라, 수출확대 노력, 역점시책 등 다양한 수출정책 달성 노력도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의성군은 전략 수출품목 발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안동시·상주시는 다양한 수출정책 지원 등 수출 기반 구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상은 뛰어난 수출실적 거양과 수출 신장세가 뛰어난 영주시·영천시·예천군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경북 농식품 수출촉진대회 시 시상할 예정이며, 수출정책에 공이 큰 공무원과 수출 우수기업체·유관기관도 함께 표창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전국 최다품목 생산지

이나 높은 신선농산물 비중, 가공업체의 영세성 등 수출여건이 열악한 점이 있지만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4.9억불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며,

“올해도 행정, 기업체, 유관기관 모두가 수출 세일즈맨이 되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사회적경제과				
		작성자	과장	차운호			
			사무관	이성룡	주무관	류대근	
		연락처	054-880-2617				

멋진 청년CEO들의 선택과 도전! 사회적경제를 품다

- 19일, 꿈을 키워가는 귀향 청년 사회적기업가 간담회 가져 -

경상북도는 19일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인 (주)바오바트에서 도내 청년 사회적기업가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의 성장과 청년CEO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10여년간 청년일자리 창출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왔으나 전국 청년실업률은 2016년말 기준 9.8%로 더 높아져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청년이 떠난 지역 농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역공동체 해체란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을 떠났던 지역인재들이 ‘도시적 삶과 안정적 직장’이란 가치에서 벗어나 농촌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 가는 귀향 청년들이 최근 들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사회적기업 대표들을 보면, ‘미녀농부’로 알려진 씬표 영농조합법인 이정원 대표는 지역농산물 거래 쇼핑몰을 통해 지난해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귀촌 청년을 위한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은누리국악예술인(협) 구승희 대표는 청도의 자연경관을 국악에 접목해 청도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튀니지 국립고등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활용해 세네갈 디카르에서 예술교육 봉사활동을 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 (주)바오바트 전승희 대표는 이런 경험을 살려 청송의 지역민에게 미술·예술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들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사회적경제에 뛰어든 청년CEO들의 ‘선택과 도전’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인재의 농촌경제로의 원활한 귀향과 도전, 정착,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남일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이 증가하고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CEO들이 있어 감사하다.” 며

“경북도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농촌 문제를 귀향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에게서 찾고 있어, 이들이 지역의 자원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꿈을 키우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간담회’ 계획(안)

◆ **괴짜들의 얘기** : 기존의 가치, 질서 체계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도전하는 젊은 인재(괴짜)**

* **배경** : 괴짜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Overman(초인), 세상의 가치체계를 넘어(Over)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고, 자신을 극복하면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Man)

1. 개요

- (일 시) '17. 4. 19(수), 14:00 ~ 16:00 (120분)
- (장 소) **객주문학관** (주)바오바트 :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59)
- (선정기준) **명확한 사회적 목적의식과 BM을 찾아가는 귀향 청년**
 - ▶ (지역) 상주 2, 경주 1, 영주 1 포항 1, 김천 1, 경산 1, 칠곡 1, 청도 1, 청송 1
 - ▶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4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협동조합 1개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4개, 서비스제공형 1개, 지역사회공헌형 2개, 기타형 2개
- (참석자) **12명** *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사회적경제과장 포함
 - 청년대표 : 7개사 (온누리국악예술인(협), 씬표, 소백로컬푸드, (주)책임, 두빛나래(협), (주)바오바트, 효와사랑(주))
 - 선배대표 : 2개사 (푸드앤디자인, 희망세상보호작업장)
 - 지원기관 : (사)지역과 소셜비즈
- (진행방식) **본부장님 주재**(인사말씀부터)
- **주요 주제**
 - 괴짜 청년들의 선택과 도전! - 사회적 기업과 경제
 - 자유정신! 괴짜 청년CEO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 괴짜 청년의 지속적인 유입과 출현을 위한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 등

2. 세부 내용

* 참석자 10분전 도착 유도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4:00~14:05	5'	도착	(상견례) 본부장님 - 참석자
14:05~14:10	5'	인사말씀	본부장님
14:10~14:35	25'	기업 소개	(소개) 청년대표, 각 3분
14:35~15:35	60'	간담회	(진행) 본부장님
15:35~15:40	5'	마무리 말씀	본부장님
15:40~15:55	15'	현장투어	전시실 (바오바트 전승희 대표 안내)
15:55~16:00	5'	기념촬영 및 폐회	

3. 참석자 명단

□ 청년 대표

	<p>이광현 (82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효와사랑 ('15년 설립, '16.11월 사회적기업 인증, 김천 소재) · 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757명, 일자리창출 15명) · Story :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양질의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 ('16년 매출 455백만원, 총근로자수 24명)
	<p>박종복 (81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책임 ('15년 설립, '16.1월 예비 지정, 경산 소재)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4명) · Story : 폐업 점포의 중고품 리폼을 통한 자원 재활용 ('16년 매출 350백만원, 총근로자수 7명)
	<p>장성희 (80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백로컬푸드(협) ('14년 설립, '16.12월 사회적기업 인증, 영주 소재)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주10명, 일자리창출 9명) · Story :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도시락 및 위탁급식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16년 매출 504만원, 총근로자수 10명)
	<p>최성은 (84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빛나래(협) ('16년 설립, '16.12월 예비 지정, 포항 소재) · 사회공헌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15명, 일자리창출 4명) · Story : 학교밖 청소년, 탈업여성이 참여하는 커피전문점 운영 ('16년 매출 24백만원, 총근로자수 6명)
	<p>이정원 (86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쉽표영농조합법인 ('15년 설립, '16.12월 예비 지정, 상주 소재) · 사회공헌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16명, 일자리창출 1명) · Story : 지역 농산물 거래 쇼핑몰 운영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16년 매출 127백만원, 총근로자수 1명)
	<p>구승희 (86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국악예술인(협) ('16년 설립, '16.12월 예비 지정, 청도 소재) · 기타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1,731명, 일자리창출 1명) · Story : 지역 문화콘텐츠와 청년 예술인이 결합된 문화예술 활동 ('16년 매출 27백만원, 총근로자수 1명)
	<p>전승희 (84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주)바이오바트 ('16년 설립, '16.12월 예비 지정, 청송 소재) · 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14명) · Story : 청소년 및 단체 대상 미술·예술체험활동 제공 ('16년 매출 7백만원, 총근로자수 1명)

□ 선배 대표

	<p>이원찬 (78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앤디자인(협) ('13년 설립, '14.12월 사회적기업 인증, 경주 소재)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22명, 일자리창출 8명) • Story : 지역 사회적기업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한 도시락 식품제조업 진출, 16년 Haccp인증 획득, 다수의 국제행사 참여 및 공공시장 진출 ('16년 매출 950백만원, 총근로자수 17명)
	<p>허만중 (77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세상보호작업장 ('14년 설립, '11.11월 사회적기업 인증, 상주 소재)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27명) • Story : 가구를 제조·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총근로자 80%이상 장애인)로서 현재 KS인증, 상품등록 출원 중 ('16년 매출 2,000백만원, 총근로자수 33명)

□ 지원기관

	<p>박철훈 (00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소설비즈 ('15.12월 설립, 경산 소재) • 대구 커뮤니티와 경제에서 독립('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홍규 이사장, 3개 지원센터(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12명 • 고용노동부 지정 중간 지원기관 ('17년 최우수 지원기관) • 기능·역할 :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인증 교육·컨설팅지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 DB 관리, 자치단체 지원·협력 등
---	------------------------------	---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작성 자	과 장	이 숙 희		
			담 당	성전중	담당자	류정아
		연 락 처	053-320-0331			

수출확대를 위한 딸기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현장설명회

- 수출딸기 고농도 이산화탄소 처리시 품질유지에 효과적, 복숭아에도 적용가능 -
- ‘설향’ 수확 후 10일, ‘매향’ 15일까지 품질 유지, ‘산타’ 딸기 2일 이상 더 유지돼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19일 고령군 우리들엔농업조합법인에서 수출 딸기 품질유지를 위한 고농도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딸기 수출·유통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수출작목의 품질유지에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고농도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을 지역 유통업체에 적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고농도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은 밀폐된 공간에 수확된 과실류를 넣은 다음 30%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채워놓고 3시간 정도 처리하면 유통과정에서 물러짐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주로 딸기나 복숭아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시범수출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결과, 주요 수출 딸기품종인 ‘설향’, ‘매향’에 효과적이며 70% 정도 속도의 딸기를 수확해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다음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수출 후 ‘설향’은 수확 후 10일, ‘매향’은 15일까지 품질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산타’ 품종의 경우, 홍콩 모의수출을 통해 2일 이상 품질이 더 유지되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박소득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와 동일한 품질과 신선도 유지가 필수이다” 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 및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지역 농산물 수출확대 및 고품질 유통을 위한 고농도 CO₂ 처리기술 현장설명회 개최

- ▶ 원예작물 수출증대를 위해 운송 및 유통 중 품질 유지 필요
- ▶ 지역 수출작목의 CO₂ 처리 기술 소개 및 타작목 적용성 검토

■ 개 요

- 일 시 : 2017. 4. 19(수), 14:00 ~ 16:00
- 장 소 :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고령군 고령읍 대가야로 1578-17)
- 참석대상
 - 관련직원 :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 직원
 - 농 가 : 딸기 작목반 농업인 30명 내외

■ 주요내용

- 딸기 수출을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연구관
 - 고농도 CO₂ 처리 원리 및 현재까지 적용 작목 소개
 - 딸기 수출현장의 수확후 관리기술 적용 사례
- 딸기의 고농도 CO₂처리 시연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현진연구사
 - 처리방법 및 처리 시 주의점
 - 품종별 처리효과 평가
- 토 의(경상북도농업기술원 류정아)
 - 딸기 유통시 현장 애로사항 청취
 - 타작목 적용 확대 가능성 검토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				
		작성자	부장	정광현			
			과장	이화성	주무관	최현경	
연락처	054-339-8201						

경북도, '토양 오염지역을 찾아라' 실태조사 실시

- 250개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 -
- 올해 교통관련시설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중점 조사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5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해 조사하게 되며, 토양 용도별로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 원광석, 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 지하수 오염지역 등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교통관련시설 지역 37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47개소를 중점 조사하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이상인 지역은 재조사한다.

조사항목은 납, 구리 등 중금속 8개 항목, 벤젠,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5개 항목, 시안 등 일반항목 9개 항목으로 총 22개 항목이다.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 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벵커C유로 인한 오염여부 확인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원시설의 소유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9일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토의를 했다.

김준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물이나 공기와 달리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나타내며, 개선 및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토양생물과 지하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오염된 토양을 조기 발견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토양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 ◇ 2017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성과 축진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 2016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개 요

- **일 시** : 2017. 4. 19(수) 14:00 ~ 16:30 ※등록(13:30~)
-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 세미나실
- **참석인원** : 30명 정도
 - 도내 23개 시·군 토양업무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2017년 사업추진 개요 및 시료채취방법 교육
 - 2016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평가
 - 건의사항,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
 - 시료 채취용기 사용방법 교육 및 배부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14:00~14:02	2'	◆ 개회, 국민의례	
14:02~14:10	8'	◆ 인사말씀	보건환경연구원장
14:10~15:00	50'	◆ 16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평가	폐기물분석과장
15:00~15:40	50'	◆ 17년 사업추진 및 시료채취방법 교육	김영란 연구사
15:40~16:00	20'	◆ 건의사항,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폐기물분석과장
16:00~16:30	30'	◆ 시료채취용기 사용방법 교육 및 배부	김영란 연구사
16:30~		◆ 폐 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4.19.(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혁신법무담당관				
		작성자	담당관	정희석			
			사무관	류시형	주무관	김정운	
		연락처	054-880-2233				

경북도, ‘자치입법 역량강화 연찬회’ 가져

-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 도모 -

경상북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도 및 시·군 법제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입안 사례가 많아져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법제 관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되면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발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법제처 협업과제, 자체발굴 조례 일제정비, 법령위임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연찬회를 개최해 왔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실제 자치법규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